



# 에너지절약유공자포상 및 우수사례 발표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이 개최한 제23회 에너지절약 촉진대회가 11월 14일 한국전력공사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촉진대회는 이한동 국무총리를 비롯 에너지계 주요 인사와 에너지절약 유공자 등 1,0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가정·교육부문의 주요 에너지절약 우수 사례가 발표됐고 에너지절약에 기여한 공이 큰 기업·단체, 홍보, 기술개발 부문의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이 이어졌다.

유공자 포상에서는 고부가 화학제품의 국산화 및 공정개선, 에너지절감 및 저효율 구조개선 등을 추진하여 1,000억 원 이상의 원가절감과 폐열재활용 등을 통해 에너지비용을 최소화하여 연평균 200억원 이상 에너지비용을 절감하고,

보일러 연료청정화를 기하는 등 에너지절감과 동시에 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한 고흥식 삼성종합화학(주) 대표가 금탑 산업훈장을 수상했다.

동탑산업훈장은 수입에 의존하던 관류스팀보일러를 열효율 90% 이상 고효율보일러로 국산화하여 국내외에 3만대 이상을 보급, 고효율기기 보급에 기여한 (주)부스타 유동근 회장이 수상했다.

한화석유화학의 허원준 전무는 매년 새로운 에너지 절약 방안을 제시, 연 평균 70억원의 에너지 절약을 이뤄냈다는 것이 높이 평가받았고, 홍지호 SK케미칼 대표는 에너지 절약 기술을 다른 산업에 전파하는데 일조한 것이 인정돼 각각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①

① 제23회 에너지절약축전대회가 지난 11월 14일 이한동 국무총리를 비롯 에너지계 주요인사와 에너지절약 유공자 등 1,0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공사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② ③ ④

② ESCO협회 최석곤 회장은 ESCO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제도개선에 힘쓴 공로로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⑤ ⑥ ⑦

③ 세코 장강돌 사장은 ESCO사업을 통해 에너지시설투자를 유도하고 500여 대형건물 등에 에너지절약

진단을 실시한 공으로 대통령표장을 받았다.

④ ⑤ ⑥ 산업자원부장관 표장을 받은 비티아이 소재옥 상무(대리수상), ENE시스템 유제인

사장, YTC EN-TECH 김기석 사장(번호순으로)

⑦ 산업자원부장관 표장을 수상한 대림로알보일러 정상봉 시장(왼쪽)과 대통령표

장을 받은 백승조 경상북도 사무관(가운데).



동서석유화학의 이균철 대표는 남들에 앞서 에너지 절약을 통해 최고 수준의 환경친화적 제품을 생산한 공적으로 석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이날 행사에서는 ESCO협회 최석곤 회장이 ESCO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제도개선에 힘쓴 공로로 산업포장을 수상했고, 세코 장강돌 사장이 ESCO사업을 통해 150억원 이상의 에너지시설투자를 유도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장을 받은 것을 비롯해 40명이 각종 훈·포장과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장을 받았다.

또한 대림로알보일러(주) 정상봉 대표이사를 비롯 ENE시스템(주)(단체부문), 비티아이 소재옥 상무, YTC EN-TECH 김기석 사장 등 ESCO 및 에너지관계자 120명도 에너지절약에 기여한 공으로 산업자원부장관 표장을 받았다.

수상자중에는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정을 개선하거나 신기술을 도입한 업계 관계자 뿐 아니라, 묵묵히 에너지 절약을 실천한 공무원, 사회 단체, 교사 등 시민들도 포함됐다.

이날 행사에서 이한동 국무총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에너지절약에 앞장선 에너지 관계자들에게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매년 전체 수  
입액 중 에너지 수입이 20%  
가 넘는 우리 현실에서 최근 미  
국보복전쟁에 따른 중동의 불안과  
다가오는 세계기후변화협약은 우리  
경제 사회 모두의 에너지절약을 강력하게 요  
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에너지 저소비형사회 구조로의 전환  
이 시급한 지금 에너지절약에 관한 시설투자 재원, 금리, 세  
제 및 기술지원 등 에너지절약 지원에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  
다”고 밝혔다.

◀ 이날 행사에서는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정을 개선하거나 신기술을 도입한 업계 관계자와 묵묵히 에너지 절약을 실천한 공무원, 사회 단체, 교사 등 160명이 에너지절약에 기여한 공으로 각종 훈·포장과 표장을 받았다.

